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단 18팀 정우람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6호

IOC 헌장에 명시된 체육계의 자율권을 지킬 수 있는 체육 수장의 등장을 기대

체육 원로 "체육계 자율성 지킬 수 있는 수장 기대"

권종오 SBS 기자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시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에도 출근 강행...회의 주재-선수촌 방문

황규인 동아일보 기자

체육계 시민단체들도 '이기흥 즉각 사퇴' 촉구

체육회 '선거 개입' 주장에 문체부 '정당한 감독 권한' 반박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폭력 근절' 스포츠의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

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 이데일리 기자

[조원규 칼럼] 정재용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에게 들었습니다

농구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조원규 칼럼니스트 / 점프볼 기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 원로 "체육계 자율성 지킬 수 있는 수장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원로들이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육 원로들은 먼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력을 회복하기 바란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지나친 간섭이나 일방적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같은 목표를 향해가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체육 원로들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원로들은 "분열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되, IOC 헌장에 명시된 체육계의 자율권을 지킬 수 있는 체육 수장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모든 체육인들과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과정을 통해 이 시대가 절실히 원하는 인물이 회장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에도 출근 강행... 회의 주재-선수촌 방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21일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10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장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자격으로 2019년 IOC 위원이 됐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임된 자가 회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IOC 위원 직위를 핑계로 내세우는 언어도단에 빠진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이 회장의 출근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 '선거 개입' 주장에 문체부 '정당한 감독 권한' 반박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는 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이기흥 회장이 2025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려는 상황을 두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심사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렸고, 대한체육회의 주무 부서인 문체부는 11일 저녁에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회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서 업무 방해와 금품 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10일 수사 의뢰, 11일 직무 정지 통보가 차례로 이뤄진 상황에서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 허용을 심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으나 이기흥 회장은 10월 전국체육대회 폐막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구성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바꾸거나, 다음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꿔야지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밀어붙여 결국 자신이 임명한 위원들로부터 3선 도전 승인을 받아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독립적 심의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로서 주무 부처의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체육회 사무처 독단으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을 꼬집은 셈이다.

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심사 전날인 11일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통보해 공정위 심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문체부 관계자는 "10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 결과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적 모순"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과 간부급 임원들도 연달아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 체육계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기흥 회장은 셀프 심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 회장을 겨냥한 선거 불출마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폭력 근절’ 스포츠의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

남자 프로농구(KBL) 고양 소노의 김승기 감독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21세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싶기도 한 선수 폭행 논란 때문이다.

소노 구단은 22일 “김승기 감독이 최근 일어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어난 논란이 바로 선수 폭행이다. 김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친 뒤 라커룸에서 A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 젖은 수건을 던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 A선수는 얼굴에 젖은 수건을 맞은 뒤 선수단을 이탈했다. 이 사건은 KBL 클린바스켓볼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소노 구단은 자체 조사 후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 감독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자리는 지키지 못했다. KBL을 대표하는 명장의 명예롭지 못한 퇴진이다.

스포츠에서는 지도자가 선수를 크게 나무라거나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농구는 중계화면에 드러나는 전타임 때 흥분한 감독이 선수에게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꽤 지난 일이긴 하지만 프로야구에서는 2002년 당시 김성한 KIA타이거즈 감독이 2군 포수를 배트로 구타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성인 프로팀은 아니지만 축구에서는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가 코치의 반복적인 언어폭력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는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했다.

비단 국내 스포츠의 문제만은 아니다.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스포츠에서도 최근 지도자의 학대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위치타주립대 남자 농구팀을 이끌던 그렉 마샬 감독은 선수들에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이유로 사임했다. 텍사스텍대 여자 농구팀 말린 스톨링스 감독은 학대 문화 조성 혐의로 잘렸다. 2021년 시라큐스대 여자농구팀 쿠엔틴 힐스만 감독은 선수 괴롭힘과 성추행으로 해고됐는데, 일부 선수들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호소했다.

프로 스포츠건, 학생 스포츠 건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학대, 폭력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특히 선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성인 스포츠에서까지 지도자의 폭언, 폭력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적 문화, 승리 지상주의, 관행의 정당화, 책임 회피 구조, 선수 인권 의식 부족을 들 수 있겠다.

권위주의적 문화는 선수들의 출전 기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의 절대적 권력과 군대식 문화가 감독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승리 지상주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이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한 것이다. 승리 지상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감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수들을 채찍질한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을 폭압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폭압적인 행위를 엄격한 훈련이나, 옛날 방식으로 포장하거나 폭력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강하게 한다는 정당한 관행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강하다. 책임회피 구조는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 개인의 성격이나 이탈 행위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다.

선후배, 사제관계 등 특수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무엇보다 스포츠계 내부의 인권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선수들의 정신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고, 지도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도자의 폭력과 폭언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스포츠계가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는 스포츠의 특수한 성격과도 맞물린 문제이다. 그래도 지도자의 폭압적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와 선수 간 수평적 관계를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 소통,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폭언, 폭력, 모욕적 언사 등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명확한 징계 절차 및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조원규 칼럼] 정재용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에 들었습니다

④ '농구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정 부회장은 한국 농구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의 변화, 'K-디비전'의 정착이 한국 농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작업이 결코 쉬울 리 없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정 부회장은 관련 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 갖는 장점입니다.

인력은 어떨까요?

“협회 직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맨파워가 나쁘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와 달랐습니다. 직원 대부분 (연령)이 2, 30대입니다. 동기가 부여되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미래 전략이라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의 맨파워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인력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협회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입니다.

과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농구인들의 정 부회장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KBS 기자 시절 기존의 엘리트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와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등 그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파장이 작지 않았습니. 그것은 엘리트 시스템에 대한 부정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은 공부와 운동, 일과 운동을 병행하는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엘리트 중심 한국 체육은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엘리트의 해체가 아닌 엘리트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 부회장은 엘리트 축구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 부상으로 축구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축구 선수의 기억이 좋지만은 않았습니. 구타와 욕설이 난무하는 80년대 초반의 운동부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스포츠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대학 시절 농구와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코트에서 땀을 흘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에게 짧은 엘리트 경험이 나쁜 기억만은 아닙니다. 소중한 꿈이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자신과 같았던 어린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개혁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기자로 현장에서 많은 체육인을 만나면서 깊이 체득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지도자를 만났습니. 그분들이 제게 많은 힘을 주셨어요. 제 생각이 맞다는, 그분들을 설득한다는 오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는 듣는 직업입니다. 들은 내용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협회 일도 그렇습니. 현장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을 확산하고 다시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정 부회장이 추구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한국 농구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의 성공을 통해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 다만 분명한 점은, 지금 한국 농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정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농구 미래 발전 전략 보고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모 기자가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가?” 물었고, 정 부회장은 “밥그릇을 이기는 정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시스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농구계 현실에 입각해서,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취임 후 대회가 열리는 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역을 돌며 농구의 미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더 많이 만나서 비전을 알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집행하고, 점검하고, 보완할 인력과 시스템도 과제입니다. 현재 협회의 상근 인력으로 새롭게 사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적의 효율을 찾는 완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 부회장을 인터뷰하며 농구인들의 생각을 같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 큰 담론입니다. 미시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더 많은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충주 운동부 학생 성폭력 사건 엄벌 촉구... 지역 시민단체 및 교육연대 기자회견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4218>

성주반다비체육센터 시범운영...연말까지 무료

<https://www.inews24.com/view/1786670>

민락국민체육센터, 무료 시범운영...자율수영·아쿠아로빅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5_0002971674

태안군, 전국 최초로 '읍·면 장애인체육회' 출범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88951>

여수 망마체육센터,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32529588645095008#google_vignette

내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진주에서 5월 2일부터 개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4161&ref=A>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체육회, 김오영 회장직무대행 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2105500007?input=1195m>

내년 부터 과천시 관내 관문체육공원 등 3개소의 테니스장 통합 운영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8945>

생활체육 대회서 화합·우정 다진 아산 여성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30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